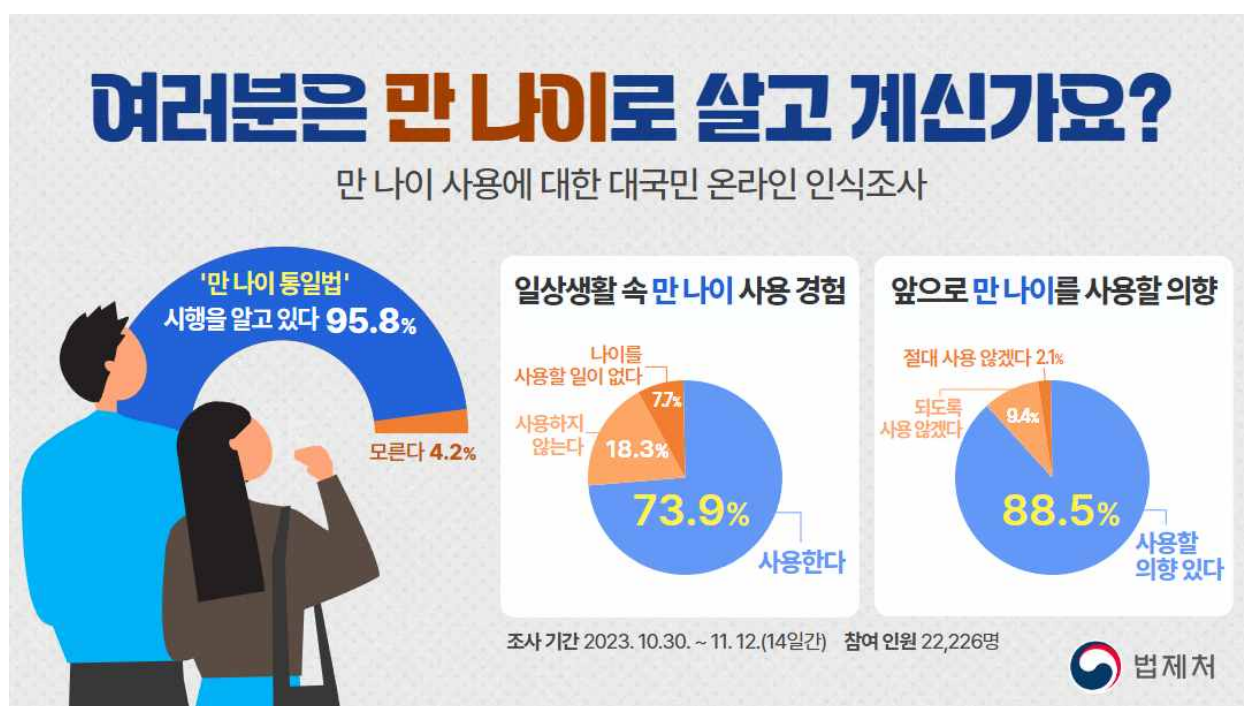


국민 88.5%,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할 것”

- 법제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공개

새해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8일,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경험 73.9%…14일 간 총 22,226명 참여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14일 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22,226명이 참여했다.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6.28. 시행)’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응답자의 95.8%(21,287명)로, 대다수의 국민

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9%(16,436명)였으며, 특히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8.5%(19,67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만 나이’ 사용하겠다” 88.5%, 점차 ‘만 나이’ 사용 확산 기대

한편 이제까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5,790명)의 67.5%(3,910명)는 “앞으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향후 ‘만 나이’ 사용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는 ‘만 나이’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4.0%(1,030명)에 그쳤으며, 상대방이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아 아직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고 답한 비율이 51.5%(13,248명)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만 나이’ 사용하니 훨씬 편리” 일상 속 편의 증진 체감 의견 많아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 무료 예방접종 등 각종 사회 서비스 이용이나 항공권 구매·호텔 예약·은행 상품 가입·기업 이벤트 참여 등에 필요한 나이 기준을 파악할 때 편리 ▲ ‘11월·12월 출생’ 또는 소위 ‘빠른 년생’이 겪는 차별적 이미지 완화 ▲ 업무 시 나이 기준 관련 오해·질의 민원 감소 ▲ 공적 영역이나 외국의 나이 기준에 대한 혼선 해소 등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법제처, 연말연시를 맞아 ‘만 나이’ 사용 집중 홍보 예정

법제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생각을 적극 활용,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 나이’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면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과도기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	책임자	과 장	구분규 (044-200-6740)
		담당자	사무관	정유진 (044-200-6736)



□ 조사 개요

- (기간) 2023. 10. 30. ~ 11. 12.(14일간)
- (매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 (참여) 총 22,226명 참여

□ 설문 내용 및 결과

문. 귀하께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2023.6.28.)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나이를 말하거나 쓸 일이 없었다
	16,436명(73.9%)	4,075명(18.3%)	1,715명(7.7%)

문. 귀하께서는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사용하겠다 (시간이 걸려도 차차 사용할 것이다 포함)	되도록 사용하지 않겠다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19,672명(88.5%)	2,084명(9.4%)	470명(2.1%)

문. 만 나이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셨나요? (중복 응답 가능)

⇒	계약서 작성 · 공적인 업무처리	가족 또는 지인과 나이에 관한 대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 소개	병원, 대중교통 등 이용
	7,828명	7,661명	7,444명	5,594명

문.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	대화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아 어색하거나 조심스러워서	13,248명(51.5%)
	또래끼리 나이가 달라지는게 어색해서	7,277명(28.3%)
	나이를 속이는 기분이 들어서	3,240명(12.6%)
	만 나이 사용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서	1,030명(4.0%)
	어린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지 않아서	950명(3.7%)

□ 주관식 설문 결과

○ 만 나이 사용 관련 긍정적인 경험 대표 사례



유00(여, 30대)

"12월 출생인 아이가 이제 곧 두 돌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한두 달 사이에도 발달 차이가 크게 나기 마련인데, 만 나이 사용 전에는 같은 해에 태어난 또래들과(구 3세) 계속 비교당하다 보니 늘 마음이 쓰였어요. 이제 아이가 제 나이를 찾은 것 같아 기쁩니다. 발달상황에 대한 조급함과 걱정도 한결 줄어들었어요."



장00(남, 50대)

"어르신 일자리 알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인처에서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먼저 하시고, 구직자분들도 여러 정책상 연령 기준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많이 알고 계시는 걸 보면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효과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김00(남, 40대)

"일상의 나이와 각종 제도상 나이가 통일되니 훨씬 편리해졌어요. 우리 가족의 만 나이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니까 혜택 챙기기도 편해졌고요. 얼마 전에 아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무료로 잘 받았고, 항공권 구매와 호텔 예약 시에도 항상 헛갈렸는데 이제 자신 있게 체크합니다. 연령별 특별한 혜택을 주는 은행상품이나 통신사 이벤트 파악도 쉬워졌어요."



원00(여, 10대)

"작년까지는 <정치와 법> 과목 공부를 할 때 각종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 헛갈렸어요. 지금은 나름 익숙해져서 문제 풀 때 좋아요. 해외 토픽 뉴스를 보거나 외국 소설책을 읽을 때도 사람들 나이가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그게 다 만 나이 기준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생일에 나이를 먹으니까 제 생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내년 설날엔 떡국 많이 먹어도 나이 많이 먹고 싶냐는 핀잔 안 들겠네요!"



서00(남, 50대)

"민원 응대를 할 때 '만 나이 통일법'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49세인 민원인께서 아직 40대라고 자꾸 강조 하시면서 기분 좋아하셨어요. 나이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오기재 등의 오류 빈도도 낮아졌고요. 공문이나 각종 규정상 나이 기준 해석 시에도 헛갈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좋습니다. 일처리가 빨라졌어요."



김00(여, 50대)

"코로나로 사회적 활동이 침체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도둑맞은 기분이었는데,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시간을 되찾은 것만 같습니다. 사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만 전 국민이 체감나이를 1~2살 높여 생각해왔던 관행이 보이지 않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보다 나이 관련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일상을 더 활기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전00(남, 30대)

“이른바 ‘빠른년생’으로 살아 온 2월생입니다. 평생 ‘죽보 브레이커’라고 불리면서 불필요한 감정소모에 시달려왔는데, ‘만 나이 통일법’으로 그간의 서러움이 해소된 느낌이에요. 구 나이계산법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이 1999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과는 형·동생이고, 2000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과는 친구가 되는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만 나이를 사용하니 또래의 범위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00(여, 40대)

“아동발달 전문 강사입니다. 아동발달이론은 세계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학생·학부모에게 현실감 있게 설명하기 위해 만 나이와 예전 한국식 나이를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이제 이중으로 설명하지 않게 되어 좋습니다. 실제로 살아온 시간을 반영하는 만 나이가 편하고 실용적이며 정확한 나이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김00(남, 30대)

“해외 거주·출장 경험을 생각하면, 예전 나이 계산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본인의 나이를 혼동하게 되고요. 세계화 시대, 국제경쟁력을 생각해서라도 Global Standard 사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외국인들과 Small Talk을 할 때 Korean Age를 이상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이제 한국 나이도 만 나이입니다!”



김00(남, 60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일에 지인들과 나이가 줄었다며 서로 축하했어요. 옛날 나이로 1살씩 차이나던 지인들과 ‘친구야~’하고 농담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이 셈법만 달라졌는데 심리적으로 많은 위안과 용기를 얻게 된 걸 느끼면서 새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점차 사회 전반적으로 나이에 관계없이 도전하는 삶,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사는 유연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만 나이 사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회 공감대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 만 나이 사용 관련 애로사항은 인식 변화 과정의 과도기에 따른 사항이 대부분
- 만 나이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실시 예정

붙임 2 2024년 출생연도별 ‘만 나이’ 정리표

- 별첨 이미지 참조